

협회, 2006년 정기총회 개최

2006년 벤처확산(Venture Expansion) 원년 선포, 임원 46명으로 새출발



1

협회(회장 조현정)는 지난 2월 28일 르네상스호텔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협회는 올해를 벤처확산(Venture Expansion) 원년으로 삼고, ▲지방으로의 확산 ▲세계로의 확산 ▲개별 산업으로의 확산 ▲폴뿌리 창업으로의 확산 ▲확대 재생산 등 5대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현정 회장은 "벤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코스닥 지수 상승, 벤처투자펀드 확산 등 벤처 제도약을 위한 것까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시기에 벤처산업을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장차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확산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벤처 확산전략을 뒷받침하고자 올해 사업목표를 '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제공'으로 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선 회원 서비스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온 협회는 올해부터 개별 벤처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벤처기업 연구조사 강화 ▲윤리경영 및 벤처홍보 강화 ▲글로벌화 지원 확대 ▲창업 및 성장



2 3



- 1 주요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 2 총회 행사장 전경
- 3 신규 임원을 소개하고 있는 조현정 회장
- 4 총회 인사말을 하는 조현정 회장
- 5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의 초청강연 모습



4



5

인프라구축 ▲정보제공 기능 강화 ▲지방벤처 활성화등을 추진한다.

협회는 회장단 18명, 이사진28명 등 총 46명으로 올해 임원진을 구성했다. 올해 임원사중 코스닥 상장기업은 28개 기업이고, 수석부회장을 4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부회장이었던 다날 박성찬 대표와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가 수석부회장으로, 이사였던 이이디스 김영달 대표와 신지소프트 최충엽 대표는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임원은 제너시스템즈 강용구 대표, 유니테스트 김종현 대표,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즈 고범규 대표, 더존디지털웨어 유수형 대표, 에피밸리 유태경 대표,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 유비쿼스 이상근 대표, 인젠 임병동 대표, 오스탬 최규옥 대표, 위니텍 강은희 대표, 리젠 배은희 대표, 중앙아이씨에스 정현경 대표 등이다.

이날 총회는 사전행사로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의 'Innovation' 강연으로 시작됐으며, 총회에서는 2005년도 감사와 사업실적, 결산 보고 및 2006년도 사업계획과 정관 개정안에 대한 승인이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는 산업자원부 정세균 장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최홍진 위원장,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벤처기업들을 격려했다.



회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수석
부회장



백종진
한글과컴퓨터 대표



김태희
케이블렉스 대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박성찬
다날 대표

부회장



권석형
렉스앤아이오텍 대표



김영달
아이디스 대표



백희숙
이나루&T 대표



신원호
태화일렉트론 대표



양덕준
레인콤 대표



우성화
티켓링크 대표



이상민
엠텍버전 대표



김하진
인케코퍼레이션 대표



최염규
인프라벨리 대표



최승연
신지소프트 대표



최휘영
NFN 대표



황기수
코아로지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이사



강용구
제너시스템즈 대표

2006년 벤처기업협회 임원진



강은희
위니텍 대표



고범규
인타그렌트테크놀로지즈 대표



김경신
한국DMB 대표



김대연
원스테라넷 대표



김병기
지오인터랙티브 대표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종현
유니테스트 대표



박기열
D정보시스템 대표



박진환
네오위즈 대표



박희재
SNU프라이션 대표



배영훈
니트젠 대표



배은희
리젠 대표



사진원
하늘교육 대표



여미정
디엠플러스 대표



유수형
더존디지털웨어 대표



유태경
에피밸리 대표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



이상근
유비쿼스 대표



이서규
픽셀플러스 대표



이철상
VK 대표



양병동
인젠 대표



정준
솔리테크 대표



정영택
핸디소프트 대표



정현경
중앙아이씨에스 대표



차기철
바이오스페이스 대표



최규욱
오스텔 대표



하재홍
아이레보 대표